

# 로봇 팔 이용 두경부암 정밀 치료... 주변조직 손상 최소화



## 건강 바로 알기 두경부암 로봇수술

오정현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비인후과 두경부 분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 필수적인 숨쉬고, 말하고, 먹는 기능과 관련된 진료를 수행한다.

두경부암이란 코, 부비동, 구강, 안면, 후두, 인두, 침샘, 갑상선 등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악성종양을 말하며 발생한 위치에 따라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침샘암, 갑상선암, 비부비동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두경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뒤얽혀 있다. 이 때문에 두경부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필요할 때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치료후 환자 개인의 삶의 질과 더불어 미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고려가 중요하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오정현 교수로부터 두경부암 로봇수술의 장점에 대해 들어본다.

◆넓어진 시야각과 초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 더욱 정밀한 수술 가능=두경부암 로봇수술은 최근

코·부비동·구강 등에 발생 악성종양 3D 확대 영상으로 섬세한 절제 가능 미세한 움직임 보정해 오류 최소화 통증·출혈 적고 흉터·합병증도 줄어

의학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로서,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두경부 분야에서는 구강을 통해 로봇 팔을 넣어서 외부 절개 없이 구강, 인후두,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을 수술하게 된다. 갑상선의 종양의 경우는 경부에 외부 절개를 가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구강이나 귀의 뒤쪽에 절개를 가한 후, 로봇 팔을 넣어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두개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의 '개방성 갑상선 절제술'은 경부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미용적인 문제가 있어 내시경 수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현재는 로봇수술로 까지 발전하게 됐다. 두경부 수술 중 '구강암'의 경우 어둡고 좁은 구강내 환경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을 가진 로봇 팔을 이용해 구강 뒤쪽의 좁은 공간에서도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의사가 3D의 확대된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더욱



오정현 교수

정밀하고 섬세한 절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통증·출혈 적고, 흉터·합병증 줄어 회복도 빨라=정확·정밀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눈에 잘 띄는 수술 절개 부위에 흉터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수술후 후유증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예전에는 구인두, 부인두 공간의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하악절개술과 입술 절개술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개방성 접근법은 높은 이환율과 안면에 상처를 남겨 미용적인 문제를 유발했다. 즉 미용적인 측면에서 이비인후과 로봇수술은 작고 정밀한 절개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로봇수술은 의사가 정확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손 떨림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을 보정해 수술 중 오류를 최소화하고, 최소침습 절개와 정밀한 조작으로 출혈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줘 환자의 회복 기간이 짧아진다. 로봇수술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해 환자의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안전성으로 생존율 가장 높음=치료법=두경부암 수술은 종양이 생긴 부위가 접근하기 힘들고, 중요 기관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련 기능



두경부 로봇수술은 정확성과 정밀성을 바탕으로 흉터와 합병증을 줄여 환자의 삶의 질에 큰 기여를 한다. 오정현 교수가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로봇수술은 최대한 기능은 살리면서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로봇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 향상된 기술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두경부 종양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로봇수술이 두경부 종양의 치료에 유용성과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됐으며,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면 두경부 로봇수술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필수 의료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구축 시급”

김윤하 전남대병원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심포지엄 기조발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추락이 국가 소멸위기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와 줄어드는 산부인과 지원 전문의, 산부인과 병원 감소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남대병원 6동 8층 백년홀에서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 6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윤하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센터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김 센터장은 “비혼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무엇보다 결혼적령기의 남녀가 결혼해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높은 집 값과 사교육비를 낮추고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며,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출산휴가와 보육휴가에 대한 보장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꺼리는 현상으로 귀결되는 의료 소송 등 의료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산부인과가 의료사고에 민



김윤하 교수

감한 이유는 태아와 임신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질병이 있지만 특히 뇌성마비는 대부분 산전 원인에 의하고 분만과정과 연관관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면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게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필수 의료인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소신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평가된 분만수가 등으로 인한 병·의원의 경영 악화도 심각하다”며 “분만실 특성상 365일 24시간을 응급상황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과 달리 응급 의료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센터장은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모자보건 관련 복권 발행이나 담배·주류에 모자보건 세금을 부가하는 방법 등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분만 시설 확충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기독병원, 개원 118주년...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환경정화 활동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은 매년 개원 기념 행사로 광주천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푸른길공원, 무등산 등지에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는 선교사묘역과 펜관마을-푸른길공원-병원 주변 골목길 등 양림동 일대를 5개 구역으로 구분, 쓰레기와 각종 오물들을 수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최용준 교수, 대한진단검사학회 우수 포스터상

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최용준 교수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4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2023)'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주관한 이번 국제학술대회(LMCE 2023)는 '진단검사의학의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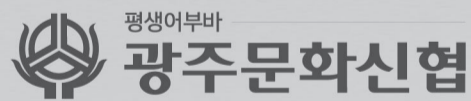
전환:빅 데이터 시대의 품질 관리'를 주제로 30개국 2,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대규모 학술 대회다.

최 교수는 진단유전학 분야의 '진행성 폐암 환자에서 순환 종양 DNA의 유전학적 특성을 폐암 조직 DNA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Genomic

Profile of Circulating Tumor DNA in Advanced Lung Cancer: Comparison with Tissue DNA)' 결과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 교수는 “앞으로 진단검사의학의 발전뿐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